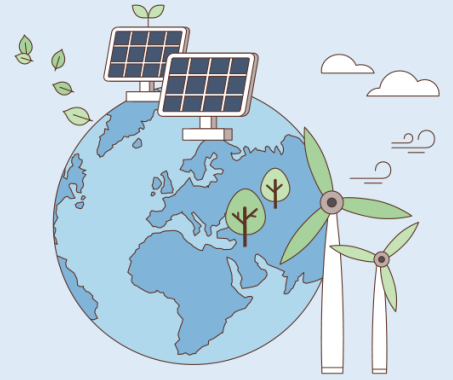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 ESG

##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 E (Environment)

#### 주간 국내 기사

- "지속가능한 지구 만들겠다"...기아, 지속가능 비전 발표 *아시아경제*
- 원전 없는 탄소중립' 논란...발전량은 원자력이 신재생 3배 *뉴시스*
- 인니서 '팜유 대박' 냈지만 티는 못내는 상사들의 속사정 *매일경제*
- 일진하이솔루스, 유럽차에 차세대 수소저장시스템 공급 개발 *서울경제*
- "300만원 투자하면 최대 연 180만원 수익"...국내 첫 마을주도 태양광 추진 *데일리안*
- COP26에 등장한 오징어게임 "삼성전자 재생에너지 100%"로 *연합뉴스*
- 도시에 '수직농장'... 엔씨, CES 2022 혁신상 수상 *조선비즈*
- "온실가스 다음은 물"...LG, 세계 수질회복 연맹 가입 추진 *한국경제*
- "친환경 설비 상용화 아직 멀었는데..." 요소수 품귀에 건설기계-택배 '발동동' *디지털타임스*

### G (Governance)

#### 주간 국내 기사

- 이재현 "10조 투자" 5일 만에...CJ, 유전자 치료제 기업 인수 *한국일보*
- 셀트리온2.0 1년만에 위기...혼돈의 '소유-경영 분리' *머니투데이*
- LG, 구광모 단독 대표 체제 전환...권영수 대표 사임 *데일리안*
-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중형게임사 미래먹거리 선언 *매일경제*
- SK, 베트남 1위 식음료·유통기업에 4000억원 투자 *이코노미스트*
- 두산건설 팔린다...두산그룹 구조조정 마침표 *서울경제*
- 포스코케미칼, 中 인조흑연 음극재 회사 지분 인수 *뉴시스*
- 롯데, 와디즈에 800억원 투자...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뉴스1*
- 이스타항공 법정관리 9개월만에 회생계획안 통과... 정상화 절차 돌입 *노컷뉴스*

### S (Social)

#### 주간 국내 기사

- "韓 근속연수 10년 늘면 임금 15.1% 올라...OECD 1위" *이데일리*
- 구글, 제3자결제 허용하되 수수료는 4%p만 낮춰...꿈수 논란 *경향신문*
- 경총 "1953년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 조속히 개선해야" *뉴시스*
- MZ세대 눈높이 맞춘 삼성...동료평가제 도입 *매일경제*
- 데이터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4월 시행 *뉴스1*
- 현대차 노·노 갈등...생산확대 물건너가나 *한국경제*
- 전경련 "경제법 형사처벌 36%가 중복처벌...개선해야" *서울경제*
-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 포브스 선정 '아시아 파워 비즈니스우먼 20인' *머니투데이*
- 네이버 경영진 쇄신 임박, 한성숙 교체 '무게' *비즈니스워치*

###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 주간 국내 기사

- 국민연금, 1,500억 위탁운용할 VC 4곳 새로 선정 *서울경제*
- 남부발전, 올해 ESG 채권 7천800억 발행...역대 최대 *연합뉴스*
- 캠프, ESG 경영전략 수립...친환경 공공건축에 7천427억 투자 *매일경제*
- KIC, 영국서 ESG 투자 기회 발굴 나선다 *서울경제*
- 국민연금, 탈석탄 전략 구체화 나선다 *더벨*
- 연기금과 기관 및 기업, ESG 경영-투자 머리 맞댄다 *머니투데이*
- 세계 7대 국부펀드 GIC, 韓 골프장 '쇼핑' 나섰다 *서울경제*
- 기후변화 대응 못하는 인간...동물들은 이미 삶을 바꾸고 있다 *한겨레*
- 우주산업에 부는 'ESG' 바람 *동아시아인스*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 ESG FOCUS UPDATES

## ESG 열풍 속 그린워싱(Greenwashing) 주의보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1.11.08

A

- ESG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 ESG투자(그린워싱)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됨. ESG는 최우선 경영의제로 떠올랐으며, 세계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은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가 '20년 \$35조에서 '30년 \$130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거래증권사위탁운용사 평가시 ESG를 주요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며, 향후 전체 투자자산의 50%이상 ESG에 투자하겠다고 발표
- 이러한 상황에서 '무늬만 ESG기업 및 투자'를 의미하는 그린워싱(Green+White Washing) 현상이 증가하면서 ESG 확대 트렌드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
- 그린워싱은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ESG 성과를 허위 공시하거나,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ESG로 분류하는 등 ESG를 단순히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행위를 통칭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린워싱'은 분류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Deutsche Bank 계열 운용사인 DWS는 2020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전체 운용자산(€9,000억)의 약 50%정도가 ESG자산이라고 발표하였으나, DWS의 전지속가능성 책임자는 DWS가 적절한 평가시스템이 부재하며, ESG펀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고발
- Blackrock의 지속가능투자 부문 CIO Tariq Fancy 역시 '21.6월 ESG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유기업, 패스트 패션 기업을 ESG펀드에 편입하는 일이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발언
- 현재 ESG규제 선도 그룹이며 특히 他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인 EC마저도 ESG의 방향, 후속 가이드라인 관련, 공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음. '20.3월 유럽에서는 지속가능금융보고서(SFDR)를 제정하였으나, 실제 시행('21.3 월)이후 대다수의 ESG펀드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보완이 필요
- ESG가 단순 유행이 아니라 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와 그에 따른 ESG펀드 등급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도 제고 요구
- 그린워싱은 금융회사의 이미지 훼손 및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지므로, ESG검증을 위한 내부 체계 및 인력 구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녹색금융 확대에 따른 해양금융의 변화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1.11.08

E

- ESG 논의가 확대되면서 EU가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등 녹색금융이 확산되는 모습임. EU는 120억 유로의 녹색 채권(2037년 만기)을 최초로 발행('21.10)하고, '26년까지 매년 350~450억 유로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할 예정
- EU 그린채권의 대규모 발행금액, 높은 유동성, 최고 신용등급(AAA)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발행물량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 녹색 채권 발행 규모는 공공, 민간부분을 통틀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에 따른 혼란을 비교적 잘 대응해 온 해운업계는 해운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올해 해운사 영업이익은 컨테이너선 중심의 시장 호황으로 지난 10년 합산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 등 선박금융 수요 확대 중임
- 선박금융 수요 확대와 더불어 ESG, IMO 환경규제 속에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등 해운-조선업의 녹색금융 논의도 확대. 탄소 배출도가 높은 노후 선박의 교체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투자 등 산업 내 ESG 실천을 위한 자금투입 목적으로 해양금융 대출수요가 증가함
-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의 황산화물, 탄소 배출 제한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해운업 대상 환경규제 시행. 선주는 해양금융 관련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신청시 특정 ESG 성과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 달성시 더 낮은 마진/이표율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해외 선주와 해양금융 취급 금융기관의 녹색금융-지속 가능성 연계 금융 참여도 증가. ESG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 녹색 채권, 대출 및 지속 가능성 연계 채권을 발행하는 해외 선주들이 증가
- '21년 10월 기준 녹색 대출은 약 89.5억달러, 녹색 채권은 약 19.7억달러 기록. BNP Paribas, Citi, HSBC 등이 가입한 포세이돈 원칙2에 지난 6개월간 3개 기관이 추가로 가입하는 등 글로벌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현재 27개)
- 포세이돈 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비중은 총액의 50% 이상. 국내 KEXIM, K-SURE 등 해양금융 취급 기관은 포세이돈 원칙 가입에 미온적
- 한편 Standard Chartered 은행이 탈탄소를 위한 해운 투자에 최대 1.5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해양금융 시장 내 녹색금융 수요는 확대될 전망
- 국내 금융사는 ESG 평가의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포세이돈 원칙 가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 글로벌 공조 확대에 대한 준비와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됨. 국내 해운사는 ESG 등급 인증 과정에서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으나 MSCI에서는 최저 등급을 받아 국내외 평가기준의 상이성을 확인함

##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정책적 접근과 시사점

- 산업연구원 21.11.03

A

- ESG 경영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나, 국내외 추산 약 600개가 넘는 평가업체가 상이한 ESG 평가 항목을 제공. 이러한 ESG 평가 환경 속에 ESG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주로 큰 규모의 상장사)은 방대한 ESG 경영정보를 취합·산출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국내 상장기업의 ESG 역량과 재무 성과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며 이는 ESG 가치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환경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음을 의미. **국내 868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등급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산업 내 높은 ESG 역량을 가진 기업의 자산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관찰됨**
- 산업 내에서 ESG 전체와 세부 등급이 1% 높은 기업은 자산수익률도 각각 0.031%포인트, 0.024%포인트, 0.033%포인트, 0.031%포인트 높은 것으로 관찰됨. 비재무적 가치를 추구하는 ESG 경영 역량과 재무 실적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ESG와 관련한 가치로 인한 산업환경의 변화를 의미
- **ESG 등급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는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며, 이는 ESG가 추구하는 가치 확대에 따른 산업변화의 기회와 도전이 산업별로 상이함을 시사.** ESG 경영과 실적 간의 실증적 증거는 ESG 가치 추구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산업환경 변화 요소임을 의미.
- 각 E, S, G 등급이 자산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며, 특히 환경 부문의 대응 역량과 자산수익률의 관계가 산업별로 가장 상이하게 관찰됨
- E 등급이 1% 높은 기업의 경우 수상운송업에서는 자산수익률이 0.3%포인트 높지만, 의료, 정밀, 광학기기 분야에서는 자산수익률이 0.3%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
- S 등급이 1% 높은 기업의 경우 정보서비스업에서는 자산수익률도 0.33%포인트 높지만,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산업의 경우 자산수익률이 0.19%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
- G 등급이 1% 높은 기업의 경우 정보서비스업에서는 자산수익률도 0.23%포인트 높지만,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내에서는 자산수익률이 0.06%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
- 환경 부문에 대한 두드러지는 산업별 영향 차이 결과는 산업별 제조 과정과 관련된 환경 문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 즉, K-ESG 지표에는 산업별 특징이 반영되어야 하며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시 산업별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11.12

E

- **세계 4대 탄소배출 국가인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러시아는 2019년 기준 세계 4대 탄소배출 국가로 전 세계 배출량의 4.6%를 차지하며, 기후변화 성과지수(CCPi) 2021에서 총 61개 국가 중 52위를 기록함
- 2019년 기준 러시아가 EU에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의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EU가 CBAM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CBAM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6년 러시아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4억 4천만 유로이며, 2035년에는 18억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됨
- 이에 러시아 주요 기업은 정부보다 빠르게 자체적인 기후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국 내 정책 및 제도가 미비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러시아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1992),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 등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는 있으나, 국내 제도 도입 현황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2021년 7월 「온실가스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되었으나, 이 법은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할 뿐 적극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음
-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되고 있으나, 대체로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저탄소 인증서 도입, 탄소단위 등록부 생성 및 유지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초기 제도 형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10월에 채택된 '장기 발전전략 2050'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나, 실제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따라 수밖에 없으며, 점진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가 강제력을 갖는 제도를 순조롭게 도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임.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탄소 흡수량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새로운 한려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에너지 효율성 제고기술 및 관련 상품 개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탄소 흡수량을 확대하기 위한 삼림자원 활용방안, 기후변화 대응정책 연구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쓰레기·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 저탄소 농업 개발 등 연관 부문에서의 협력도 가능할 것임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현황 및 시사점

- KOTRA 21.11.10

-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배출총량 거래 원칙에 따라 운영함. 상쇄배출권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의해 얻어진 탄소배출권을 의미함
- 탄소세 대비 장점으로는: ① 탄소배출 감축 효과 측정 가능, ②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③ 기업의 자율성 있음, ④ 타국 거래제와 연계 가능성 등이 있음
- 중국 당국은 14년부터 후베이, 광둥, 상하이 등 8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소 시범운영을 거쳐 '21.7월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출범시킴. '14~'20년 8개 시범지역 탄소배출권 총거래량은 2.37억 톤, 총 거래액은 57.37억 위안임
- 전국 거래소 출범(21.7월) 후 배출권 거래 가격은 40~50 위안/톤, 일평균거래량 14만 톤임.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으로 약 2,000개 사가 참여하는 40억 톤 규모의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됨
- 中 '20년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99억 톤으로, 미국의 2.2배, 한국의 17.1배 수준임. 생태환경부가 운영을 총괄하며, 정식 통합거래소 출범 전까지 상하이환경에너지거래소가 거래 업무 총괄. 도입 초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규범화(의무감축)에 주력하고, 향후 자율감축(상쇄배출권)과 연계할 전망
- 무상할당은 벤치마크(BM)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할 예정. 벤치마크(BM) 방식은 생산 단위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임
-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전력발전을 중심으로 적용 중이나, 향후 8대 **고에너지 소모 산업에 확대 적용 예정임**(전력, 비색 금속, 건축자재, 철강,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 항공)
- '20년 탄소배출량 46억 톤, 태양광수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에 의한 탄소배출 상쇄 추진. 中 석탄수급 부족으로 전력 공급난 발생(21.9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
- 전력생산 중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 : (20) 24% → (30) 41% → (60) 90%. **철강산업은 '20년 탄소배출량 약 18억 톤, 대표적인 에너지집약 산업으로 허베이성-장쑤성 등 주요 철강 생산지역은 감산 조치를 시작, 전기로 도입, 철스크랩(재활용 철강원료) 재활용률 향상 추진 중임. '21.8월 中 철강생산량 7,380만톤이며,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함**
- 화학공업은 '20년 탄소배출량 5.2억 톤, 메탄올과 합성암모니아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음. 배출권 거래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청정 에너지 활용, 기술혁신 등을 추진 중임
- 정부의 계획대로 2025년부터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화학공업을 적용산업으로 지정할 경우, 관련 제품의 생산비용 상승할 것으로 예상. 특히 메탄올과 합성 암모니아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품목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
- 상하이 거래소의 기존 평균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35위안/톤으로 가정할 경우, 에틸렌글리콜, 합성 암모니아, 에틸렌 등 고에너지 소모형 제품의 가격에 대한 영향이 클 전망이다
- 탄소배출에 의한 생산비용 증가폭은 127.75~207.9 위안/톤 수준이며 이에 따른 가격 인상폭은 5~7% 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중국 태양광 발전 규모는 2,605억 kWh로, 중국 전체 전력 생산의 3.5% 비중을 차지함. 2020년 말 기준 중국 태양광 발전설비 총용량 253GW로, 세계 1위임. 2020년 중국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48.2GW로, 전년 대비 60.1% 급증함
- 중국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2021년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55GW를 돌파하면서 총용량은 308GW에 달할 전망
- 태양광산업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대표 산업으로,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생산량수입량 급증 전망. '21년 폴리실리콘 생산량 45만 톤 달성 전망
- 전력, 철강 등 탄소배출 규제 대상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 추진 및 고에너지 소모 산업발전 억제할 것"이라고 발표함. 관련 분야 제품 對中 수입 또는 진출기업은 가격 상승 대비 필요
- 중국 5,100여 개 철강 회사 중 철강제련 능력이 있는 500여 개 제철소는 감산 및 고로 개조 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중국의 제철은 90%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로임. 10% 미만은 전기로를 통해 이뤄지는데 고로 제철 시 철강 1톤당 2.1톤 이산화탄소가 배출됨. 전기로는 0.9톤이 배출됨
- 중국의 탄소중립 대전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기대됨. 수력-풍력-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철강 전기로, 철스크랩 등 시장 확대가 전망됨
- 중국의 철강 감산 및 수출 감소로 원자재인 철광석의 10월 가격이 지난 7월 대비 절반으로 하락(220달러/톤→110달러/톤)했으나, 철강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해 국내 철강 실적 호조 및 수익 개선됨
- 포스코 열연관판 출하 가격은 톤당 5만원 인상됐고, 후판 가격은 톤당 20만원 인상됨. 인상중국산(産) 철강의 국내 수입 감소로 국내 철강 생산기업의 내수 유통 물량이 확대되고 가격이 상승함, 이로 인한 **'철강 슈퍼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단, 중국산 저가 철강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했던 국내 중소기업에는 국내 철강 가격 상승이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7.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Global X Uranium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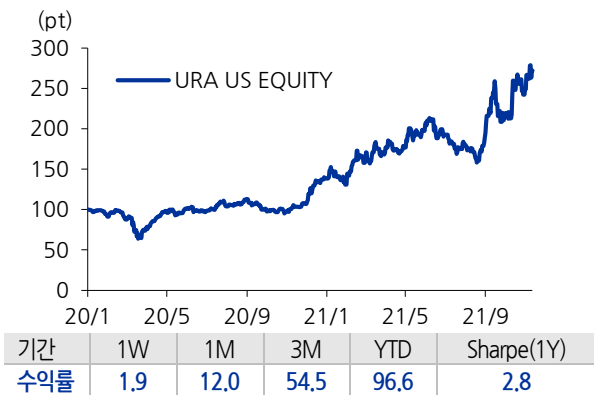
- 글로벌 우라늄 채굴, 가공 및 관련 기술 개발 기업 중 유동 시가총액 5,000만 달러 이상,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10만 달러 이상 종목 대상
- 일평균 거래대금에 2,000을 곱한 값과 유동 시가총액 중 더 작은 값을 종합하여 전체 대비 비중을 지수 내 비중으로 결정
- 관련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비중으로 핵심 및 비핵심 기업으로 분류한 뒤 각기 다른 비중 상한 부여

ETF 개요

티커	URA US EQUITY
상장일	2010-11-05
운용사명	Global X ETFs/USA
총보수율(%)	0.69
기초지수	Solactive Global Uranium & Nuclear Index
가중 방식	Modified Liquidity and Float-Adjusted Cap
주당 가격(달러)	30.14
보유종목 수	50
시가총액(백만달러)	1,533.6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12일 기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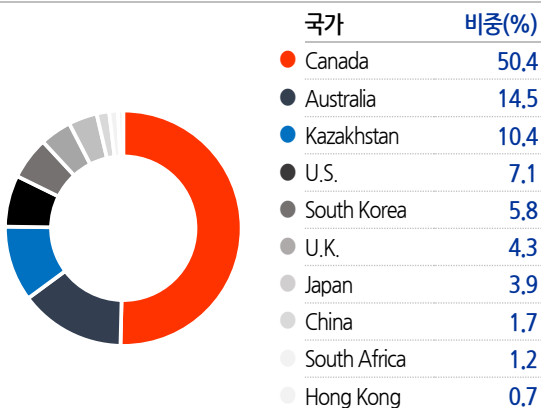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12일 기준  
주 :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CCO CN	Cameco Corp	10,949	23.4
KAP LI	NAC Kazatomprom JSC	12,553	10.7
NXE CN	NexGen Energy Ltd	2,756	7.8
PDN AU	Paladin Energy Ltd	1,992	5.8
DML CN	Denison Mines Corp	1,585	5.4
EFR CN	Energy Fuels Inc/Canada	1,709	4.9
UEC US	Uranium Energy Corp	1,417	4.2
LEU US	Centrus Energy Corp	1,200	2.9
YCA LN	Yellow Cake PLC	913	2.6
GLO CN	Global Atomic Corp	603	1.7
합계			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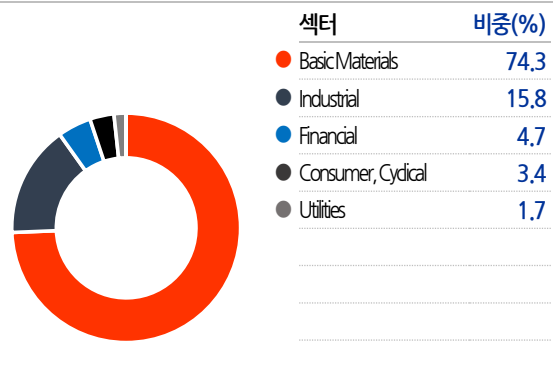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12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1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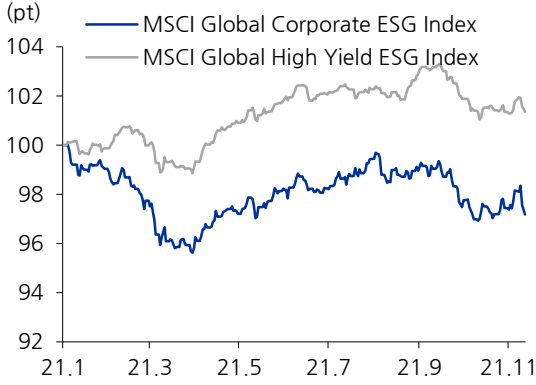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1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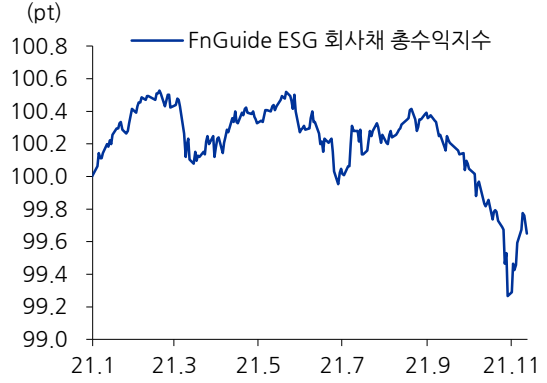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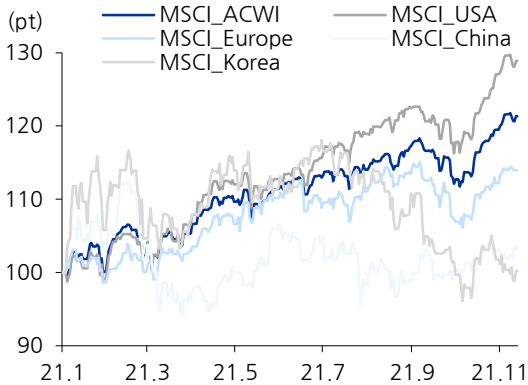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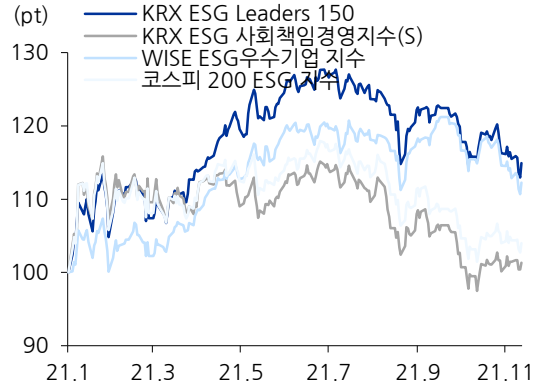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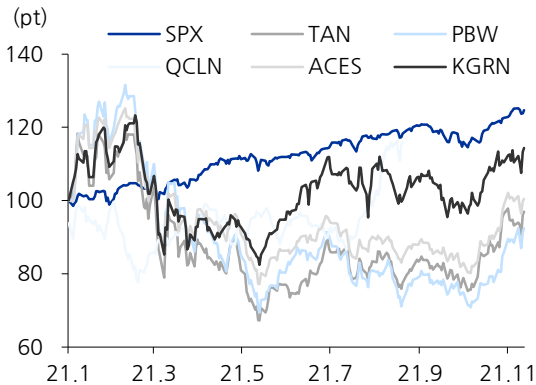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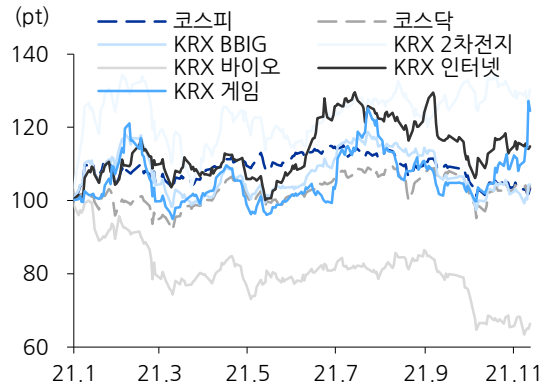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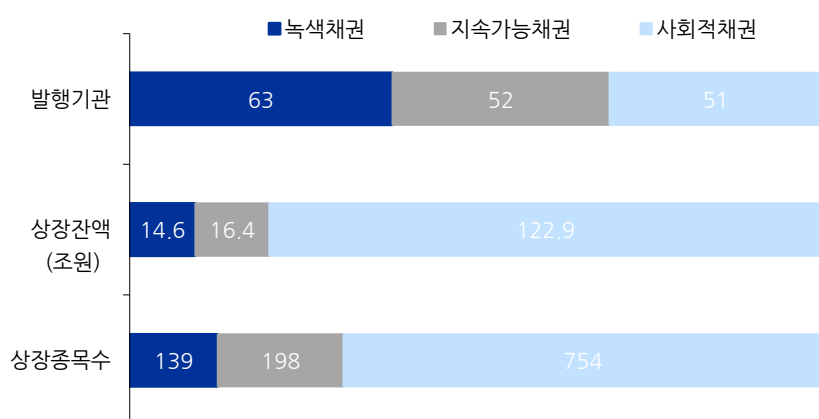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83-1(지)	2021/11/12	2.07500	4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83-2(지)	2021/11/12	2.11400	2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83-3(지)	2021/11/12	2.15400	1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83-5(지)	2021/11/12	2.31400	3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83-7(지)	2021/11/12	2.39500	5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83-8(지)	2021/11/12	2.49200	20,000
지속가능채권	케이비캐피탈 483-11(지)	2021/11/12	2.54700	3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48(사)	2021/11/12	2.29400	190,000
녹색채권	인천항만공사 18(녹)	2021/11/12	2.14700	11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14(사)	2021/11/12	2.04000	70,000
지속가능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1083(지)	2021/11/11	1.62700	250,000
지속가능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1084(지)	2021/11/11	2.13300	50,000
지속가능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1085(지)	2021/11/11	2.52800	100,000
녹색채권	신한은행 25-11-이 10 갑후(녹)	2021/11/10	2.84000	260,000
사회적채권	중소기업은행(변)2110 이 1A-07(사)	2021/11/10	1.07000	80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59(사)	2021/11/08	2.13000	10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34-1(지)	2021/11/08	2.18000	2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34-2(지)	2021/11/08	2.21600	1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34-3(지)	2021/11/08	2.56300	20,000

자료: SRlbond, 유진투자증권

###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l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3자로부터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9.30 기준)